

## 버섯

박은혜  
진원동초등학교 3학년

우리 고장은 버섯이 특산물이다. 그래서 학교길에는 버섯을 재배하는 하우스가 많다. 나는 호기심이 생겼다.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하우스문이 열려있어서 들여다 보니 버섯들이 참 많았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고 일었다. 그곳에 계시던 아주머니께서 설명을 해 주셨다.

“이건 팽이버섯이야, 그리고 이건 송이버섯이구.”

“아주머니, 이건 무슨 버섯이에요?”

내가 여쭙어보자 아주머니께서 “응, 이것은 느타리 버섯이란다. 잠시만 기다리렴.”

대답을 해 주시며 바쁘게 가셨다. 조금 뒤 다시 아주머니께서 오셨다.

“이런 하우스에서 키우는 버섯말고도 여러가지 버섯이 많단다. 밀버섯·벚꽃버섯·표고버섯·줄각버섯·깔때기버섯 등이 그에 속한단다.”

“정말 그렇네요.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인사를 드리고 하우스를 나왔다. 여러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버섯을 키웠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버섯을 먹지 않았었다.

이제부터는 반찬투정 하지않고 잘 먹어야겠다. 그리고 버섯에 대해 알아보아야겠다.